

민주 대선 주자들, 김홍빈 대장 추모하며 호남 표심 구어

이낙연·정세균·박용진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염주체육관 영결식 참석
“불굴의 도전정신 있겠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히말라야에 잠든 김홍빈 대장을 추모하며 또 한번 호남 민심 구어에 나섰다. 이들 중 일부는 ‘열 손가락 없는 중증 장애인’으로는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 14좌 완등을 달성한 뒤 하산길에 실종된 김 대장의 장례식에 참석하는 길에 주말과 휴일 호남행을 택해 또 한번 ‘땀방’ 바닥 민심 잡기에 힘을 쏟았다.

8일 광주 염주체육관에서 열린 김홍빈 대장의 영결식에 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낙연·정세균·박용진 후보를 비롯해 국민의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부인 이소연씨가 참석해 김 대장이 떠나는 마지막 길을 지켜보며 영면을 기원했다.

이날 영결식에는 또 여권에서는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야권에서는 윤상현 국회의원이 참석해 고인을 추모하고 유족들을 위로했다.

이낙연 후보는 “김 대장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러 왔다”면서 “산악인들과 장애인들께 꿈과 열을 심어 주셨던 김홍빈 대장의 영생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영결식이 끝난 뒤 포항으로 자리를 옮겨 철강 신소재 중견기업 방문, 기자간담회를 갖는 등 TK(대구·경북) 민심 공략을 이어갔다.

지난 7일부터 전남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정세균 후보는 이날 영결식에 참석해 “광주시민과 국민들은 김홍빈 대장의 아쉬운 서거에 대해 마음이 아플 것이다”면서 “김 대장이 건강하게 돌아오기를 확신 고대했는데, 정말 가슴이 무너진다”고 애도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신 김 대장의 뜻과 기백은 영원히 우리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이 될 것”이라고 고인을 기렸다.

정 후보는 앞서 지난 7일, 1년 전 수해 피해를 입었던 구례를 방문해 주민들과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순천 ‘아랫시장’을 찾아 민심행보를 이어갔다. 정 후보는 이날 영결식에 참석한 뒤 다산 초당을 방문했고, 다음날인 9일에는 전남 신안 압해정 씨 세척비 제막식에 참석한 데 이어 전남도의회를 방문, 기자간담회도 가질 예정이다.

박용진 후보도 “고인이 보여준 도전, 연대 정신을 이어가겠다”면서 “김 대장이 남긴 뜻이 있는 만큼 그 뜻이 우리 사회를 떠받칠 바란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영결식이 끝난 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상경했다.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대신해 이날 영결식장에 모습을 보인 부인 이소연씨는 “장애의 몸에도 히말라야 14좌를 완등하셨는데,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돼 마음 아프다”면서 “그분의 불굴의 의지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조문 드리고 싶어 찾아왔다”고 전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원정을 떠나기 전에 만났는데, 김 대장은 14좌 완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실 것으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했다”면서 “김 대장의 기록은 국민과 장애인들에게 큰 희망으로 남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야권 인사로는 최근 ‘진정’인 국민의힘에 복당한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 국회의원이 김홍빈 대장의 분향소를 찾아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윤 의원은 “고인과 직접적인 인연은 없었지만, 엄홍길 대장 등 산악인들과 교류하면서 평소 산악인들의 도전 정신에 대한 존경심을 품고 있었다”고 빈소 방문 배경을 설명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특히 김홍빈 대장은 열 손가락 없는 장애의 몸으로 히말라야 14좌를 완등하는 등 불굴의 도전정신을 보여주셨다”면서 “코로나 19 위기를 맞고 있는 대한민국이 김 대장님이 보여주시는 불굴의 도전정신을 되새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권열 기자 cki@kwangju.co.kr



장애인으로서 세계최초로 히말라야 8000m급 14좌 완등에 성공한 ‘열 손가락 없는 산악인’ 김홍빈 대장의 영결식이 8일 오전 광주 염주체육관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박용진, 정세균, 이낙연 후보와 송영길 당대표(왼쪽부터)가 묵념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이제 편히 잠 드소서”...김홍빈 대장 영결식 엄수

유가족·산악계 인사 등 49명 참석
“히말라야 별 되어라”...영면 기원

“사랑하는 선배여, 후배여. 나를 잊지 말아주세요. 우리가 올랐던 산에 가거든 내 이름 부르며 슬한한 부여주기를, 훗날 이 산에 오거든 잘 있었나 안부를 물어주기를, 험님! 부디 평안하세요.”

오랜 시간 동안 김홍빈 대장과 등반을 함께 해 온 후배 류주숙(광주보건대 산악OB)씨는 그에게 바치는 헌시를 이 같은 문장으로 맺으며 눈물을 흘려냈다.

장애인으로서 세계 최초 히말라야 8000m급 14좌를 완등한 ‘열 손가락 없는 산악인’ 김홍빈(57)대장의 영결식이 8일 오전 광주 염주체육관에서 엄수됐다.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거리두기로 49명만이 참석해 열린 이날 영결식에는 유가족과 손중호 대한산악연맹회장, 이인정 아시아산악연맹 회장, 피길연 광주시산악연맹 회장 등 산악 관계자 및 내빈들이 참석해 히말라야 깊은 눈 속에서의 그의 영면을 기원했다.

영결식은 김 대장이 이뤄낸 장애인 최초로 세계 7대륙 최고봉과 히말라야 8000m급 14좌 완등 기록 등을 소개하며 시작됐다. 김 대장의 활동과 육성을 담은 추모 영상이 나오자 참석자들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고개를 떨쳤다.

손중호 대한산악연맹 회장은 조사를 통해 “히말라야의 별이 되어 웃고 있을 김홍빈의 영면을 기원하며 그의 업적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



장애인으로서 세계최초로 히말라야 8000m급 14좌 완등에 성공한 ‘열 손가락 없는 산악인’ 김홍빈 대장의 영결식이 8일 오전 광주 염주체육관에서 열렸다. 김 대장의 영정과 청룡장이 산악 동료들의 손에 들려나오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용섭 광주시장,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이인영 통일부 장관, 장병완 2021 브로드피크원정대 고문, 정장득 송원대학교 산악회장 등이 차례로 추도사를 낭독했다.

정찬득 송원대 산악회장은 “홍빈아! 이곳이 너의 14좌 완등의 축하 자리였어야 했는데 이제는 내려올수도 없는 높은 곳으로 가버렸구나”라며 김 대장의 영면을 아쉬워했다.

영결식에는 사라 살와르 주한 파키스탄 대사관

차석이 영결식장을 찾아 김 대장을 조문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했다.

2020 도쿄올림픽 스포츠클라이밍 경기에 출전하고 돌아온 천종원, 서재현 선수도 참석했다.

영결식을 마치고 김 대장의 영정과 체육훈장인 청룡장을 앞세운 운구행렬은 김 대장이 산을 처음 접한 송원대 산악부와 무등산 자락의 ‘김홍빈과 희망만들기·김홍빈 희망나눔 원정대’ 사무실을 거쳐 장지인 문민정사 납골당으로 향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정세균, 7~9일 사흘간 광주·전남 표발같이

“구례 수해는 미숙한 댐운영 탓”
순천·구례·강진·신안 등 찾아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정세균 전 총리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광주·전남을 찾아 표심 잡기에 총력을 쏟고 있다.

정 전 총리는 우선 지난 7일 지난해 섬진강 물난리로 큰 피해를 본 구례를 찾아 주민들을 위로하고 신속한 피해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구례 주민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확히 1년 전 구례에 쏟아진 집중호우와 미숙한 댐 운영으로 인해 구례장터를 비롯해 침수피해가 심각하다”고 수해 원인을 짚은 뒤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대처와 군, 소방관계자, 자원봉사자 등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피해를 신속히 복구할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정 전 총리는 이어 “총리 시절 두 차례에 걸

쳐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상황을 점검하고, 구례군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정 필요성을 문재인 대통령께 건의하여 수용됐다”며 “피해보상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에는 순천 아랫시장을 방문해 지역민심을 청취하고 상인들로부터 애로사항을 들었다.

광주·전남 방문 이틀째인 8일 오후에는 강진 다산 초당을 찾았다. 정 전 총리는 “다산 정약용 선생은 저에게 정신적 지주이자 신안 알해 정씨 조상”이라며 “다산 선생에게서 실용주의와 실사구시 정신을 배웠고 다산 선생의 사상이나 철학을 정치할 때 사표로 삼았다”고 말했다.

정 전 총리는 9일 오전 신안으로 이동해 압해정 씨(나주 정씨) 고유제 및 세척비 제막식이 열리는 중천회 행사에 참석하고, 오전 11시 전남지역 기자간담회를 마지막으로 2박 3일 광주·전남 방문일정을 마무리한다. /김형호 기자 khh@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1210-중-116876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개원 19주년!!

2021년 첨단우리병원은 철저한 **감염관리**와 세심한 **회복관리**를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상장표창

특수가발 별매 (윈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기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등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